

**해체주의 건축 디자인에서 설치미술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to Installation Art in Deconstruction Architecture Design

김명옥*/ Kim, Myoung-Oak

Abstract

The latest art is being characterised by an ever active exchange between different genre.

This is a study on the installation aspect in deconstructio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The progressive and aggressive nature of installation art embodies uncatagorized genre, the freedom of material application,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time in space, the reversion of subject and object, the union of art and every experience, understanding of object through deconstruction, enlargement of concept of space, collage-style composition and layer technique. I can conclude that the installation aspect in Tschumi's Parc de la Villette is its call upon the audience to actively participate, the introduction of a coincidental conjunction, its challenge on the conventional idea of park and its flexibility caused by human activity and time.

In Hadid's Hong Kong Peak Club the installation aspect is

the application of layer technique using four enormous beams horizontally laid out on a man-made mountain. Furthermore, Libeskind's pursuit of the mental in Berlin Museum Extension through the penetration of an invisible line into a void create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role of a museum and thus relates itself to installation art.

The installation aspect in Himmelblau's Vienna Roof Renovation is the literal deconstruction of the roof of an old building in the old section of Wien and the expression of time and space through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environment by the use of juxtaposition technique. Finally, I note that the installation aspect in Gehry's Santa Monica Residence is the reorganization of cheap material as a form of 'object', that creates spontaneity, movement as well as flow of time in space and exhibit the double-sidedness of the visible world.

키워드 : 해체주의 건축, 설치미술

1. 서론

건축과 실내디자인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해체주의 경향과 미술에서의 설치 양상은 그 내용과 사고 면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학제간의 교류와 영향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지금, 예술 및 학문의 분야에서는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의 창작물이 탄생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에서 해체주의 경향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88년 '건축에서의 해체주의' 라는 심포지움과 '해체주의적 건축' 이라는 전시회를 계기로 미래의 흐름을 예견하는 건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¹⁾

한편, 미술에서의 설치 양상은 1960년대 중반에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절정을 이루면서 건축에서의 흐름과 시대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내용면에서도, 해체주의 건축과 설치미술은 전통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을 통하여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이러한 견지에서, 해체주의 건축을 설치미술과의 관련 맥락에서 논의함에 있어, 먼저 해체주의 건축 디자인과 설치미술의 경향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몇몇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대표작품을 예증으로 설치미술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작가로는 해체주의 경향을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이 구분되는 버나드 츠미(Bernard Tschumi), 자하 하디드(Zaha Hadid),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 쿵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 프랑크 게리(Frank Gehry)를 택하였다.

이들은 1988년 필립 존슨(Philip Johnson)과 마크 위글리(Mark Wigley)가 주최한 '해체주의적 건축' 이라는 전시회에 참가한 대부분

1) Geoffrey Broadbent, Deconstruction A Student Guide, Academy Edition, London, 1996, p.11

심포지움 명, 'Deconstruction in Architecture', Tate Gallery, London, 1988 / 전시회 명,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88

* 정희원, 덕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실내디자인 전공) 전임강사

** 본 논문은 1997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의 작가들로 해체주의 건축이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건축가들이다. 그들의 대표작품인 추미의 빌레뜨공원(Parc de la Villette), 하디드의 홍콩 피크 클럽(Hong Kong Peak Club), 리베스킨트의 베를린미술관 확장안(Berlin Museum Extension), 힘멜블라우의 비엔나 옥상 개조(Vienna Roof Renovation), 게리의 산타모니카 주택(Santa Monica Residence)을 중심으로 그 작품 경향과 설치미술과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 건축의 설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논문으로 해체주의 건축 작품 중 설치 양상을 띤 작품과 설치 작품 중 해체주의 건축 요소가 있는 작품을 차후 연구에서 비교하여 보는 것은 의의가 있겠다.

2. 해체주의 건축 디자인과 설치미술의 특성

2-1. 해체주의 건축 디자인의 특성

포스트모던 상황과 탈구조주의 그리고 데리다의 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된 건축에서의 해체주의 양식은, 클로츠(Heinrich Klots)에 의하면, 러시아 구성주의의 외형적 불안정성을 적극 도입하여 그동안 건축디자인 원리로 당연시 되어졌던 조화, 통일, 안정성 등을 거부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다른 구조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

해체이론의 기본 전제가 서구 전통의 형이상학과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부인이듯이, 해체주의 건축도 노리스(C. Norris)에 의하면, 건축의 외부 구조 뿐 아니라 개념의 철학적 구조까지 해체한다.³⁾

탈건축적인 디자인 방법을 사용하여 완벽하지 않은 현실의 모순적 상황을 표현하고 조화, 통일, 중심, 리듬 대신 긴장, 우연,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건축어휘로 나타낸다. 모더니즘 건축이 생활공간과 산업 사회에 대한 이상을 추구하며 유용성,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해체주의 건축은 전통이나 생산성을 외면하고 현실의 모순을 인정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해체주의 건축은 기능적 의미부여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예술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건축 디자인의 한정된 표현의 틀로부터 자유로워져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의 다의적인 상황을 다각적 측면에서 표현하기 위해 시각 외의 지각 요소까지 결합시키면서 경험의 측면을 강조하여 역동감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⁴⁾

2-2. 설치미술의 특성

설치미술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드 올리베이라(de Oliveira) 외 2인이 공동 저술한 「설치미술」이란 저서와 서성록의 저술 그리고 월간미술에서 설치미술에 대해 특집으로 다룬 정현이와

기타 일련의 글에 나타난 여러 특징을 종합해 보면⁵⁾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설치미술이란 작품이 설치될 장소의 공간적인 특성을 살리는 건축적 속성, 둘째, 현 시대의 이질성과 다의성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의 확대, 셋째, 관객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총체적 경험을 하도록 의도한 점, 넷째, 예술을 예술의 영역 밖으로까지 끌고나와 예술과 일상을 결합시키는 점 등이다.

설치미술에서의 공간이란 오브제가 놓이는 실제 장소의 의미뿐 아니라 '삼차원의 공간을 넘어서 사회 문화 역사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된 인식론적 공간이며, 전통적인 시각미술이 도외시했던 시간의 축에까지 관여하는 다차원적인 공간'⁶⁾으로 건축적 공간과 맥을 같이 한다. 설치미술의 양상을 떠받쳐 건축적 속성이 강한 작품은 초기의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의 메르츠바우(Mertsbau)로부터, 현재 설치작가로 활동하면서 실제의 건축 공간을 다루는 최재은의 경동교회 옥상, 대전 엑스포 재활용관, 95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일본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치미술 공간과 해체주의 건축과의 관계는 '장소성 개념의 확대' '공간에 시간성 도입'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설치미술은 표현의 확대를 위하여 재료 사용에 있어 개방성을 보이며, 작가의 재료에 대한 개방적 생각은 오브제 구성에 반영되고,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때로는 기존 형식이 해체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 사용의 개방성' '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해체로 인한 사물과의 교감'이란 관점과, 현 시대의 다의적 상황을 표현하는 '레이어 기법'을 해체주의 건축과의 관계에서 살펴 보겠다.

설치미술은 관객의 총체적 경험을 위하여 관객을 작품 안으로 끌어 들인다. 그 작품들 안에서 관람객도 자연히 작품의 일부가 되어버려 관람자도 관람되어지는 주객전도 즉, 관객의 상호주관성으로 표현된다. 이것을 사물과 맥락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사물과 맥락의 상호관계성(interaction between thing and their context)"⁷⁾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오브제와 오브제에 의해 재창조되고 변형된 공간과의 관계로 인해 실제 공간까지도 오브제화하는 공간과 오브제의 상호주관성으로까지 발전하기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건축과의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상호관계성'이란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술과 일상을 결합시켰던 근원을 미술사적으로 더듬어보면 모든 현대미술의 발상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오브제도 예술가에 의해 선택된 순간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Ready-made)로부터 시작되어 로버트 라우젠버그(Robert Rausenbug)의 폴라주와 앳상블라주의

2)Heinrich Klots, 현대건축론, 양동양 옮김, 기문당, 1994, p.387

3)C. Norris & A. Benjamin, 해체주의?, 청람번역팀 옮김, 도서출판 청람, 1996, p.44

4)이질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해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와 공간이 형성되고 그 공간 안에서 경험되는 오감과 더불어 운동감이 창조된다는 뜻이다.

5)N. de Oliveira & N. Oxley & M. Petry, Installation Art, Smithsonian Institute Press, 1994, pp.7-30

서성록, 설치미술 감상법, 대원사, 1995, pp.7-47

정현이, 설치미술로 가는 길, 월간미술, 제7권 9호(1995), pp.56-65

오광수, 이준, 유재길, 서성록 외, 회화의 확산, 평면에서 입체로, 월간미술, 제2권 11호(1990), pp.5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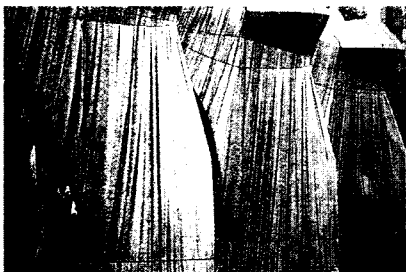
6)정현이, 앞의 책, p.65

7)N. de Oliveira & N. Oxley & M. Petry, 앞의 책, p.8

구성 방법 그리고 그 생각을 대지로 끌어들이어 작업한 대지의 작가 크리스토프(Cristo)의 작품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건축과의 관계에서 '예술과 일상의 결합'이라는 점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그림 1〉쿠르트 슈비터스의 메트츠비우



〈그림 2〉크리스토프의 풍네프 다리



〈그림 3〉최재은의 대전엑스포 자원재활용관 모형

3. 해체주의 건축가의 작품분석

3-1. 버나드 추미의 빌레프공원

파리의 외곽 폐허의 땅에 버나드 추미의 빌레프 공원안이 당선됨으로써 21 세기의 도시공원의 비전으로 새로운 의미의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빌레프 공원에 나타난 주된 개념은 도시에서 탈출하려는 전통적 공원의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도시사체의 사회상을 표현하는 공원안이었다. 추미는 이곳에서 현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오늘날의 문화상황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장소성 개념의 확대) 빌레프 공원은 다양한 경험과 행동을 수용하고 계획되지 않은 우연한 사건과 행동의 범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경험의 장소로 사람과 사람들의 행위 또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건축요소로 간주한다. 추미는 "건축은 건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

니라 운동일 수도 사건일 수도 있으며 건물안에 있는 사람도 건축의 환경 구성 요소⁸⁾로 생각한 것이다. 이 경우 건물은 배경에 해당되며 사람들은 건물을 배경으로 무대장치 안에서의 배우에 해당되는 뒤바뀐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⁹⁾(상호관계성) 빌레프 공원에서의 모든 오락 및 교육적 성취는 관람자 스스로에 의한 경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 관객의 총체적 경험이 중요시 된다.

형태적인 면을 분석하면 다양한 행동과 경험, 우연한 사건과 사고(accident)를 반영하며 러시아 구성주의의 점, 선, 면의 세가지 요소의 겹쳐짐과 어긋남으로 현대의 분열된 상황을 표현한다. 각자의 시스템은 각기 독립된 요소로 존재하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재결합되기도 하는 건축적 이벤트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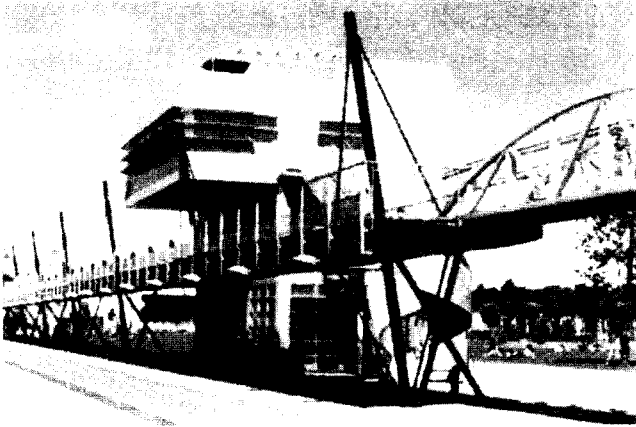
120m 간격의 그리드틀 안에서 10m x 10m x 10m 입방체의 빨간 알루미늄 패널의 풀리는 점적 요소로 존재한다. 풀리는 공원 전체에 정돈된 질서를 주는 반면, 필요에 따라 해체되어 내부에서 돌출되기도 하고, 다른 조형적 요소가 덧붙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 관통, 겹쳐지기도 하면서 도시생활 안에서의 각 공간의 관계 및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상호관계성)

당초 무목적성의 풀리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교육, 문화, 유희의 용도로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함을 표현한다.(공간에 시간성 도입) 풀리의 변형은, 의미에 있어서는 규칙적 질서 안에서도 자발발생적인 것을 수용하는 융통성과(예술과 일상의 결합) 다른 것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하며(해체를 통한 사물과의 교감), 형태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변화 가능한 다양한 오브제의 양상을 띄며 조형성을 강조한다.(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선적 요소는 공원 전체를 회오리치듯 돌아가는 곡선의 산책로 즉, 파도 모양의 캐노피와 모든 교차하는 길과 움직이는 시스템을 설명하며 면 요소의 성격과 형태를 한정지어 준다. 개념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고나 폭발로 인한 운동감을 표현한다. 주차 공간, 휴식 공간, 위락 공간의 잔디, 자갈, 페이빙 등 표면재료의 연속적인 면 요소는 점, 선 요소가 관통되면서 그 요소들에 의해 공간의 형태가 한정되어 진다. 이와 같이 세 시스템이 여러 층에서 중첩되고(레이법 기법) 충돌하는 가운데 긴장감은 유발되고 이로인해 공원의 운동감이 창조된다. 따라서 세 요소는 때로는 상호의존적이기도 하고, 반대적 요소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는 서로 대립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긴장감이 매우 적을 때는 관계가 없기도 하고 매우 유사하기도 한 다양함을 보여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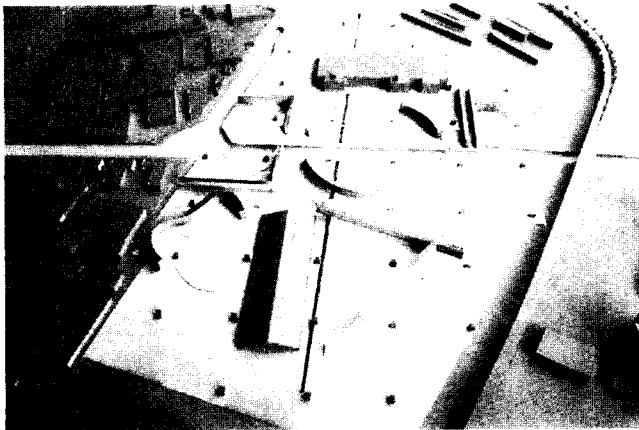
8) Heinrich Klotz, 앞의 책, p.392

9) 관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건물만이 아니라, 때로는 관람자도 배우가 되어 대상(객체)으로서 보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세 시스템의 겹침은 결과적으로 다양하게 변형된 풀리들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중첩되고 관통되느냐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것의 구성이어서 대립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의 구조 및 내용에 보완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관계가 없이 개별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내용면으로 전환하여 예를 들면, 어떤 풀리는 이층을 통과하는 선 시스템(산책로)의 단순한 중간계단 역할을 하여 상호의존적이기도 하고, 어떤 풀리는 레스토랑 등으로 쓰임에 따라 선 시스템과의 충돌로 인해 야기된 출구 문제로 인해 대립적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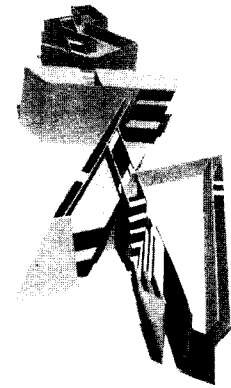
〈그림 4〉 빌레드 공원 폴리



〈그림 5〉 빌레드 공원 마스터플랜 모형

태로 인해 야기된 보이지 않는 것의 추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지그재그 형태의 산미술관 내부 벽체는 평면작품 전시시 전시벽면의 역할을 하게 되며, 관람자가 관람을 할때 그 형태로 인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시각 변화가 고려되었다. 또한 그 형태로 인해 입체작품 전시시 전시공간이 자연히 형성됨에 따라, 지그재그의 벽체는 외부에서는 오브제 역할을 하게되고(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실내에서는 작품을 위한 배경이 되는 이중역할을 발견하게 된다.(상호관계성)

지그재그의 선과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빈공간의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깨진선은 이질적인 특징을 가진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건축적 과정에서 발전되어 추미의 폴리들처럼 두 미술관을 서로 관계짓기도 하고 표면상 보이지 않는 그대로 독립적이기도 한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는 음악적, 철학적 테마를 건축의 영역에 끌어들여면서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이성적인 차원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베를린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의 형태로 미술관의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베를린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확대시켰다.(장소성 개념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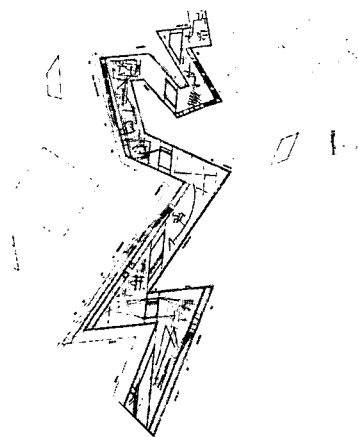
〈그림 6〉 베를린미술관 확장안 모형

3-2.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미술관 확장안

베를린 시내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베를린 미술관 증축안에서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無의 공간(void)에 내재된 정신적 의미를 건축물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두 종류의 선에 대해 언급하는데 하나는 직선이나 여러 조각으로 잘려진 선이고, 또 하나는 일그러졌으나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선이다.¹¹⁾

조각 난 선은 구미술관과 새미술관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수 많은 구조체를 의미하며(레이어 기법) 지그재그의 선은 무의 공간을 관통하는 실질적인 새미술관의 형태를 표현한다. 노에버에 의하면, 베를린 미술관의 형태는 미술관의 특별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의 역사와 상징의 역사를 전달한다.¹²⁾

지그재그의 형태로 인해 외부에서는 빈 공간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해체를 통한 사물과의 교감), 빈 공간으로 인해 구미술관과 새미술관은 서로 자율성을 유지한 듯 보이나 사실 두 건물은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다.(상호관계성) 즉, 한 도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오는 정신을(공간에 시간성 도입) 미술관의 형태를 통해 그리고 형



〈그림 7〉 베를린미술관 확장안 평면도

11)Daniel Libeskind, Daniel Libeskind Countersign, Rizzoli International, New York, 1992, p.86

12)피터 노에버,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김경준 옮김, 도서출판 청람, 1996, p.77

3-3. 지하 하디드의 홍콩 피크 클럽

자하 하디드의 홍콩 피크 클럽안은 산의 지형적 특성을 재해석하여(장소성 개념의 확대), 산의 일부 바위를 들어내고(해체를 통한 사물

과의 교감), 그래니트 돌로 된 인공적인 기하학 형태의 산을 다시 만들어 산을 대체시킨다는(재료사용의 개방성) 추상적 이미지의 계획안으로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녀는 고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각기 다른 각도로 날아온 듯한 네개의 거대한 보(beam)를 높이가 다르게 수평적으로 교차시킴으로써(레이어 기법) 보와 보 사이의 다양한 공간을 가능하게 했다.

그녀의 계획안을 간단히 설명하면, 지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네개의 거대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보는 모두 선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가장 낮게 위치한 첫 번째의 보의 일부는 땅에 묻혀 있고, 두 번째 보와의 사이 공간에는 전망이 있는 이층짜리 스튜디오식 아파트가 존재한다.

그위의 두번째와 세번째 보의 중간공간은 13미터 높이의 시원한 개방공간으로 홍콩 도심을 바라보고 있으며, 헬스클럽과 부대시설을 완비한 도시의 연장 개념으로서의 사교 클럽을 형성한다. 로비로부터의 진입로는 길게 뻗어있어 도시 경관을 바라보며 진입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클럽의 활동 또한 보여진다. 두번째 보로부터 약간 기울어진 세번째의 보는 기둥으로 받혀져 있으며 그위는 지붕정원이 있는 고급아파트이며 네 번째 보의 윗공간은 수영장이 있는 건축주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디드의 초기 스케치에서 보여지듯이, 각기 다른 각도로 날아오고 있는 듯한 수평적 보들이 산에 겹치면서 꽃히는 마치 영화와 같은 구성법은 미래주의의 순간적 운동감을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진입자가 산을 오르면서 도시의 경관을 보게 되는 진입의 과정,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지각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였으며(공간에 시간성 도입) 그 과정에서 운전, 수영, 독서 등의 클럽의 활동이 수평적으로 교차되는 행위의 관계를 표현한다.¹³⁾(상호관계성)

다양한 각도의 선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건물의 구성요소들로 인해 오락시설과 지적활동이 중첩되어 다양하고 운동감이 있는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며(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그로인해 중력에 도전하고 있는 듯한 힘을 표현한다.¹⁴⁾



〈그림 8〉 하디드의 홍콩 피크 클럽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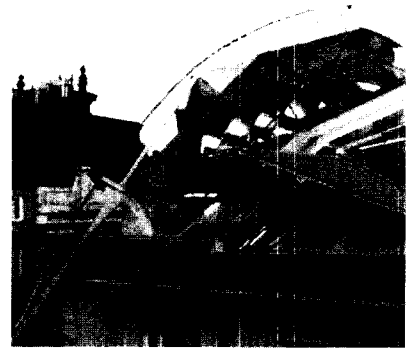
- 13) 홍콩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에 4개의 다른 각도의 보가 다른 층을 형성하며 겹쳐져 운동감 있고 다양한 내부공간을 형성한다. 그에따라 그 안에서의 인간의 활동 또한 중첩되어 상호 소통되어 교류된다는 말이다.
14)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체가 떨어진다는 중력의 법칙에 도전하여 보가 어떤 힘에 의하여 날아와 산의 일부를 이루는 듯한을 표현한 말이다.

3-4. 힘멜블라우 그룹의 비엔나 옥상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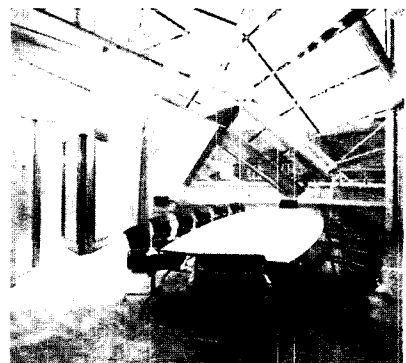
힘멜블라우 그룹은 비엔나 구시가지 낮은 아테네풍 건물에 자유스러운 사고와 표현방법으로 지붕 및 다락층을 개조하여 주위환경을 활성화시켰다.

기존의 낮은 건물의 지붕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체시켜 주위 환경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였고(해체를 통한 사물과의 교감), 거리에서부터 건물로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활모양 같기도 하고 새의 날개 같기도 한 곡선의 구조물을 디자인 요소로 도입하여 지붕을 대체시켰다.

이곳에서 활 모양의 주된 지붕구조는 거미줄과 같은 보조 스틸 구조와 겹쳐지면서 커다란 셸(shell)구조를 형성한다.(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셸구조로 표현된 하나의 커다란 공간은 그들의 "열린건축(open architecture)"¹⁵⁾의 개념을 반영하는데 열린건축이란, 노에버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기 총족적인 구조물로 장래 이용자를 위해 일정 범위의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내부의 공간 분할은 사용자의 의도에 맡기는"¹⁶⁾(공간에 시간성 도입), 즉, 데리다의 무목적론적인 추미의 폴리(follies)의 개념과 같은 것이다.¹⁷⁾ 이같은 철로 된 셸 구조물 위에 유리를 덮음으로써 내부는 빛이 가득한 개방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폭발에 연유한듯



〈그림 9〉 힘멜블라우의 비엔나 옥상 개조



〈그림 10〉 엠블라우의 비엔나 옥상 개조 내부

15) 앞의 책, p.26

16) 앞의 책, p.26 & p.33

17) 추미의 폴리는 원래, 특정한 목적을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무목적성의 폴리로 선, 면적 요소의 교차에 의해 변형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은 차후 어린이 놀이공간, 레스토랑, 사무소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추어질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힘멜블라우의 열린 건축의 개념, 즉, 어떤 용도이라도 맞추어지는 융통성 있는 공간과 맥을 같이 한다는 말이다.

한 비틀어진 계단과 유리벽, 불안정하게 매달리고 관통하는 천정의 보들은 현대사회의 복잡함과 다양함을 반영한다.(장소성 개념의 확대)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선만큼이나 내부공간에서 외부로의 환경에 주의를 돌리게 관심을 유도한 것은 내외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결과였다.¹⁸⁾(상호관계성)

그들의 표현방법에서, 즉, 개방공간과 막힌표면 사이에서 오는 대조, 뒤틀리고 날카로운 형태에서 오는 긴장감, 관통하는 I보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의 연출, 불안정하게 매달린 보와 각기 다른 각도의 구조체 선들의 교차와 같은(레이어 기법) 독일 표현주의의 격렬한 내적 감정을 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실내는 복잡한 듯하면서도 개방감으로 인해 명쾌한 미래의 쉼터(shelter)를 연상시킨다.

3-5. 게리의 산타모니카 주택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게리의 주택은 옛집과 그것을 둘러싸면서 증개축된 새집의 두 공간으로 크게 나뉘어지며, 마감재료의 처리와 구성방법에 따라 세 개의 독립적 요소로 다시 분리된다.

옛집의 내부는 예전의 칠과 껍질을 모두 벗겨버린 채 노출되어 있고 옛집의 외부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였으며 새집의 외부는 매쉬망으로 옛집을 둘러싸고 있다.(레이어 기법)

각각의 겹 자체는 각기 다른 마감방법과 구성방법으로 인해 오브제 양상을 띠며 이질적 재료의 대립으로 인해 긴장감을 유발시킨다.(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사실 '싼다는 것', 자체는 크리스토(Cristo) 등에 의해 순수미술 영역에서는 여러 차례 작품으로 표현되어 왔으나 게리가 그것을 건축의 영역에서 건축적 용어로 표현하였다는데 그 독특함이 있다.¹⁹⁾

증축된 새집은 옛집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어 옛 집의 보존 의미를 넘어 그 존재 가치를 더해지게 된다.(공간에 시간성 도입) 또 새집과 옛집을 동시에 보게 됨으로써 사이트의 의미는 더욱 살아나게 되어(장소성 개념의 확대) 우리가 처한 시대적 시각의 관점에 의문을 품는 계기가 되며 또 그 반대되는 관점의 상상을 허용한다.(상호관계성)

건축공사를 위해 임시로 쳐 놓은 것 같은 흉하게만 생각되었던 골진 합석판과 매쉬 철망 등을 주택에 사용함으로써(예술과 일상의 결합)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관점에 따라서 추한 것도 때로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는 팝아트의 적극적 사고를 건축 영역에서 가능케 했다.²⁰⁾(재료사용의 개방성) 그외에도

노출된 각목과 거친 합판 및 생각없이 올려놓은 듯한 계단의 설치 방법으로 즉흥적이고 임시적 느낌의 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은 사실 일상재료의 풀라쥬(앗상블라쥬)기법에 의한 것으로 도시에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들을 게리의 비전으로 그것을 다시 해석하여 공간에 재구성하는 설치미술의 기법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게리는 북측 중앙창을 통해 빛과 반사에 의해 공간이 변모되는 다양함의 효과를 이룬다.

외벽의 합석판 일부를 잘라내어 창을 만들어 부엌과 식당 부위에 실질적으로 빛을 줄 뿐 아니라 빛과 그림자와 그 반사에 의해 실내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해체를 통한 사물과의 교감) 그리고, 유리 입방체를 회전시켜 비뚤어진 오브제 형태의 코너창을 만들어 사람이 코너를 돌 때의 운동감과 회전감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Nude Descending the Staircase)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²¹⁾고 게리는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게리가 아이디어를 처음 포착하고 재료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설치미술가가 그들의 작업을 행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아름다움으로 느끼지 못하던 평범한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추출하여(재료사용의 개방성) 새로운 비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폐품의 미학적 가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그의 건축주의기도 했던 라우젠버그(Robert Rausenberg)의 영향이었고, 순발성과 즉흥성의 표현은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의 영향이었으며, 장소와 환경에 대한 재평가의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장소성 개념의 확대) 가까운 친구였던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영향이었다.

이와같이 순수예술에서나 가능했던 자유로운 표현방식의 적용은 게리의 타 예술 장르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세심한 관찰력,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설치양상을 띤 건축 표현을 위하여 게리는 "기존 건물을 깨뜨려 부분으로 만들기도 하고(해체를 통한 사물과의 교감), 상식을 벗어난 재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재료사용의 개방성), 오브제를 만들듯이 그것들을 재구성하기도 하였으며(오브제 경향의 구성), 거친 표면의 미학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그의 작품들을 미완성인 채로 두기도 하였다."²²⁾ 게리의 작품은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에서 느끼는 의식의 흐름도 볼 수 있다.

추하던 도시 환경에서 순간적으로 아름다움을 포착했을 때의 의식은, 어렸을 적 목조에 물고기를 담아두고 놀던때 물고기의 팔딱거리며 튀던 모습을 보면서 비늘의 반사와 물로 인한 굴절 등으로 순간적

18) 앞의 책, p.35

19) 설치작가 크리스토는 다리와 섬과 계곡과 길을 싸면서 관광객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 주려 하였다. 일시적이었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기억이 남아있어 그것들의 존재의 가치는 그 후에도 유지되었다.

게리 역시 산타모니카 자택에서 평범하고 오래된 주택을 사들인 후, 크리스토가 물체를 싸듯, 옛집을 철매쉬망과 합석판과 유리 등으로 둘러싸며 증개축을 하였다. 결국 옛집의 외부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예전보다 더 의미있게 실내에 존재하게 되었고, 둘러싸면서 생긴 중간의 빈 공간은 빛이 가득한 부엌공간으로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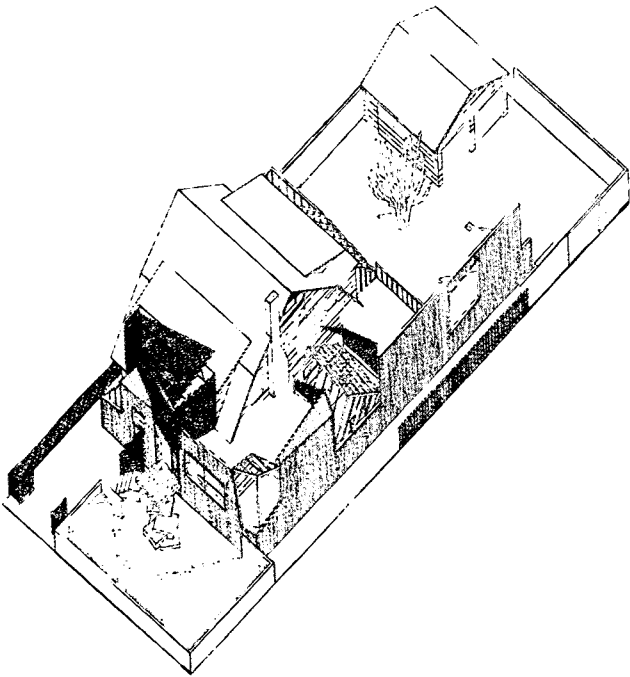
결국 게리가 순수미술적 사고를 건축적 과정을 통해 건축물로 표현했다는 말이다.

20) 팝아트는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적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물들을 재인식시켜 현대적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킨다." (에드워드 루사-스미드, 팝아트, 전경희 옮김, 열화당, 1993, pp.9-12) 게리의 재료사용법에서 이와같은 팝아트의 사고를 볼 수 있다. 그는 건축공사장에서 흔히 쓰이며 재료 자체로는 아무도 아름답게 볼 수 없는 기성품의 철 매쉬망과 합석판 그리고 거친 합판등을 그의 건축물에 치밀하게 사용함으로써 추한 것을 아름다운 건축 구성 요소로 변화시켰다는 말이다.

21) Henry Cobb, The Architecture of Frank Gehry, Rizzoli, New York, 1986, p.38

22) Heinrich Klotz, 앞의 글, p.389

인 아름다움을 포착했던 의식으로 존재하다가 계리의 산타모니카 주택 개조에서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의 다양한 생동감으로 표현된다.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계리의 작품은 항상 인간의 눈높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눈높이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고 바꾸어 생각해 함으로써 가시적 세계 이면의 모습까지 보여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11〉 계리의 산타모니카 주택



〈그림 12〉 계리의 산타모니카 주택 내부

4. 해체주의 건축가의 작품에 나타난 설치미술 요소의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설치미술의 요소를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또한 그들의 디자인 방법과 미술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5. 결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치미술의 특성은 크게 건축

〈표1〉 추미, 하디드, 리베스킨트, 힌멜블라우, 계리의 설치요소 분석

설치미술	추미의 라일레드 공원	하디드의 홍콩 피크 클럽	리베스킨트의 베를린미술관	힌멜블라우의 비엔나 옥상건축	계리의 산타모니카 주택
공간에 시간성 도입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가능한 폴리	진입 과정 중시	과거, 현재, 미래를 수용하는 미술관	열린건축(사용자 의 의도에 따른 공 간분할)	세집을 통해보는 옛집의 의미
재료사용의 개방성	선적요소/ 합성판, 와이어줄 면적요소/잔디, 페이빙, 콘크리트	그라니트 산, 남아온듯한 보	일상재료의 사용	1보, 스티플, 철 사	산언제가를 이용 (철매쉬, 합성판, 합판 등)
상호관계성	건축물과 인간의 상호관계성	보고 보이는 것의 상호관계성	보이는 것과 보이 지 않는것의 상호 관계성	내부와 외부의 상 호관계성	옛집과 새집의 상 호관계성
예술과 일상의 결합	자연발생적 사건 수용	보의교차로 인한 사람행위의 교차	미술관의 일상화	일상모티브의 사 용	일상재료의 선택
장소성 개념의 확대	도시 생활의 일부로서의 공원	산의 재해석	베를린의 내재된 의미의 추구	비엔나 구시가지에 현대의 상황 반영	옛집과 새집의 공 존
해체를 통한 사물과의 교감	폴리의 변형	산의 일부 해체	지그재그 형태로 인한 무의 공간의 형성	지붕의 해체	옛집의 해체를 통 한 새집과의 대화
오브제 경향 의 구성법	폴리의 형태	보의 구성방법	오브제적 건물의 폴라주 기법	지붕의 형태 구성 방법	재료구성 방법
레이어 기법	수평적 레이어	4개의 각도가 다 른 보의 겹침	보이지 않는 선의 관통	지붕의 여러 구조 의 겹침	구심적 레이어

〈표2〉 추미, 하디드, 리베스킨트, 힌멜블라우, 계리의 디자인 방법 및 미술과의 관계 비교

	추미	하디드	리베스킨트	힌멜블라우	계리
디자인 동기	사회적 요소에 바탕	영화적 요소에 바탕	정신적 요소에 바탕	주관적 요소에 바탕	개인적 요소에 바탕
디자인 경향	의도적	도전적	철학적	무의식적	직관적
디자인 이슈	우연 중요시	지형 중요시	관계 중요시	디테일 중요시	과정 중요시
디자인 접근방법	논리적	추상적	개념적	감성적	비격식적
미술양식	개념미술적	초현실주의적	개념미술적	비구상주의적	추상미술적
미술사조의 영향	러시아 구성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미래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독일 표현주의	현대조각/팝아트

적 속성, 표현의 확대, 총체적 경험, 예술과 일상의 결합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설치미술의 특성 중 해체주의 건축과 관련 지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의 시간성 도입, 재료 사용의 개방성, 상호 관계성, 예술과 일상의 결합, 장소성 개념의 확대, 해체를 통한 사물과의 교감, 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레이어 기법을 중심으로 다섯 명의 해체주의 건축가의 건축 작품을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버나드 추미는 빌레드 공원에서 데라다의 해체 논리를 적용해 점, 선, 면적 요소의 분리, 겹침, 대결로 운동감 있고 다양한 도시공원을 만들어 기존 공원의 개념에 도전했다. 건축물과 인간의 상호관계성, 우연성 도입, 전통개념에 대한 도전, 시간과 상황에 따른 변화 수용, 폴리의 오브제 경향의 구성법 등이 설치적 양상을 띠었다.

자하 하디드는 홍콩 피크 클럽에서 산의 일부를 해체시키면서 산을 재해석하여 거대한 네 개의 보(beam)를 수평적 레이어 기법으로 겹치게 하여 오브제 경향의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활동 또한 교차되어 설치적 측면이 보였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베를린 미술관 확장에서 베를린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장소성을 통하여 미술관의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무의 공간(void)에 보이지 않는 선의 관통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미술관의 역할을 재해석한 점이 설치적 요소였다.

힌멜블라우의 설치적 양상은 비엔나 구시가지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의 옥상층과 지붕을 개조하면서 옛 건물의 지붕의 해체와 새지붕

구조들의 겹침이라는 방법을 통해 장소성과 시간성을 표현하며 실내와 외부 환경의 상호관계성을 표현한 점이었다.

프랑크 게리는 값싼 재료를 이용해 공간을 재구성하여 오브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산타모니카 주택을 개조하면서 폐품의 미학적 가치, 순간성, 공간에 시간성 도입 등을 표현하였으며, 옛집과 새집의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 가시적 세계 이면의 세계까지 보여주려한 점이 설치적인 측면이었다.

이와같이 설치미술은 사교의 포괄성, 적극성으로 인해 순수미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건축과 실내디자인 분야에도 그 영향을 미치며, 해체주의 건축 디자인 또한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사고방식과 조형성으로 인해 타장르에 영향을주며 서로간의 표현의 확대, 사교의 개방성, 영역 확장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Norris, Christopher & Benjamin, Andrew, 해체주의?, 청람번역팀 옮김, 도서출판 청람, 1996
2. 노에버, 피터,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김경준 옮김, 도서출판 청람, 1996
3. 루시-스미드, 에드워드, 팝아트, 전경희 옮김, 열화당, 1993
4. 서성록, 설치미술 감상법, 대원사, 1995
5. Klotz, Heinrich, 현대건축론, 양동양 옮김, 기문당, 1994
6. Broadbent, Geoffrey, Deconstruction A Student Guide, Academy Editions, 1996
7. Cobb, Henry, The Architecture of Frank Gehry, Rizzoli, 1985
8. de Oliveira, Oxley, and Petry, Installation Art, Smithsonian Institute Press, 1994
9. Libeskind, Daniel, Daniel Libeskind Countersign,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1992
10. 오광수, 이준, 유재길, 서성록의, 회화의 확산, 평면에서 입체로, 월간미술, 제2권 제11호, 1990
11. 정현이, 설치미술로 가는 길, 월간미술, 제7권 제9호, 1995

〈접수 : 1997. 7. 18〉